

2015년도 <문화가 있는 날-생활목공예 프로그램> 심의 총평

○ 심의일정

- 서류, 인터뷰 심의 : 8.24(월) 14:00~18:00, 대학로예술극장 리딩룸
- 현장 점검 : 8.28(금)~8.31(월)
- 오리엔테이션 및 컨설팅 : 9.1(화) 11:00~12:00,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

○ 심의위원 : 최창희(위원장), 원성은, 최원혁 (총 3인)

지원 신청 단체들은 '문화가 있는 날-생활목공예' 사업의 추진 목적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적합하게 수립하였으나, 첫 번째 기획 공모로서 사업의 지속성과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였습니다. 그러나 선정된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사업 목적의 적합성, 사업내용의 우수성, 기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였습니다.

선정된 단체들은 일상 속 생활문화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수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획력 있게 좋은 취지로 접근하였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목공예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상의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전문성 있는 단체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선정단체 운영진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며,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행사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독려를 하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심의위원장 최창희

심의위원 원성은, 최원혁 일동